코로나19는 여당 지지율을 상승시켰는가?: 팬데믹의 유럽 정당 지지율에 대한 영향

심 성 은*

〈국문초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는 보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유럽 역시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건 위기 자체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고는 2020년 코로나19가 제1, 2차 파동을 거쳐 확산하는 동안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어떠한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코로나19의 1차 파동, 휴지기, 2차 파동 시기의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코틀랜드 등 30개 유럽 국가의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에 대해 코로나19의 인적 피해와 같은 보건적 요인,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총수입액 등 경제적 요인, 23개 봉쇄 조치라는 정부 조치 요인의 영향을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인적 피해는 정당 지지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1백만 명 당 사망자 수는 2차 파동 때에만 여당 지지율 상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국기 걸집 효과가 팬데믹 재확산으로 인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23개 봉쇄 조치 중에서는 외출 금지, 식당 폐쇄, 직장 폐쇄 조치가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외출 금지를 더 오랫동안 실시한 국가일수록 여당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 국회입법조사처, sungeun.shim@hotmail.com.

셋째, 경제적 요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정당 지지율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파동 시에는 경제적 요인과 여당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가 적었으나, 2차 파동 당시에는 GDP 성장률과 총수입액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야당 지지율은 2차 파동 시 실업률 상승 폭이 큰 국가일수록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즉 1차 파동 때보다 2차 파동 때 경제적 회고 투표 경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분석을 통해 30개 유럽 국가들의 정당 지지율은 코로나19 확산 시에도 팬데믹 피해 자체보다는 경제적 요인과 정부의 봉쇄 조치에 더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유럽 정당, 회고적 투표, 극우정당, 코로나19, 봉쇄 조치

차 례

I. 서론	III. 코로나19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영향
II.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IV. 결론

I. 서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인데, 경제적으로는 2020년 유로 지역과 EU의 평균 GDP 성장률이 각각 -6.4%, -5.96%로 급락해(World Bank)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기록한 바 있다.

유럽 정치도 팬데믹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당,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변화했다. 시민들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주체인 여당을 지지하거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묻기도 했다. 여당에 대한

여론 추이에 따라 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큰 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했다. 극우정당(Far-right Parties)이나 극단주의 정당들(Extremist parties)들은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위기 상황을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악용하기도 했다.¹⁾

이러한 정당 지지율 변화는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산 때부터 목도되었는데, 세부적인 변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초, 슬로바키아(16%p), 네덜란드(13%p), 독일(10%p), 핀란드(8%p),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각각 7%p), 몰타와 슬로베니아(각각 6%p),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각각 5%p),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포르투갈, 리투아니아(각각 3%p), 체코 공화국, 스웨덴, 에스토니아(각각 2%p), 헝가리(1%p)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1년 12월 1일 당시에 비해 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당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후 팬데믹이 추가 확산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야당이나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당 지지율이 변화한 요인으로는 팬데믹 관련 보건 요인, GDP 및 수입 변화 등의 경제적 요인, 봉쇄 조치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피해가 큰 곳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경제적 피해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라는 요인이, 정부의 봉쇄 조치가 시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곳에서는 봉쇄 조치가 정당 지지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팬데믹 발발 이후의 여당과 야당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지율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팬데믹 기간임을 감안해 특정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와 같은 보건 요인, GDP 성장률, 실업률,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시민

1) Conor Gallagher, “The Far Right Rises: Still A Fragmented Minority Movement in Ireland, The Far-right Is Using the COVID-19 Crisis Extend Its Influence – Online And on The Street”, *Irish Times*, 19 September 2020; Schaer, Cathrin. “Germany’s Other Neglected Plague Is Far-right Terrorism: The Coronavirus Crisis Is A Perfect Proving Ground for The Extreme Right’s Theories of Apocalypse”, *The Daily Beast*, 18 March 2020.

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실내 활동 금지, 초중고 교육 기관 오프라인 수업 폐쇄, 호텔·식당·체육시설 폐쇄, 마스크 의무 착용, 대규모 집회 금지, 재택근무 등 23가지 정부의 팬데믹 대응 정책을 감안해 어떠한 요인이 정당 지지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6개 EU 회원국²⁾과 영국,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30개 유럽 국가이다. 종속 변수는 코로나 이전 시기, 제1차 파동, 휴지기, 제2차 파동 시기 당시, 30개 국가의 여당과 제1야당, 극우정당의 지지율 및 변동 폭으로 잡았다. 독립 변수로는 시기별 분석 대상 이외 정당의 지지율 변화,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 경제적 요인, 각 시기마다 30개 정부의 23가지 대응 정책 각각의 실행 일수로 정해,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정당 지지율 변화에 관한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연구 가설을 세우고(II), 2020년 1, 2차 파동과 그 사이의 휴지기 때 각 정당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보건·경제·정부 정책 실행 일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III).

II.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자신의 목표 달성이 더 쉽게 달성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정당 선호는 이념, 교육, 종교 등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경제·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경제·사회적인 외적 요인에 더 많이 영향

2) 키프로스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경제적 요인 데이터 등이 부족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3) G. Tsebelis, *Nested Games: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Politic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다른 국가에서는 야당이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거나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적절하지 못해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거나 여당과 극우정당의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경우, 여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야당 지지율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처벌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을 지지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이러한 보상-처벌적 접근은 Key의 연구로 시작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연구의 핵심이 되었다.⁴⁾

이후 Kramer와 같은 학자들은 회고적 투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면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경제 침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⁵⁾ 구체적으로 Wilkin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GDP가 1% 상승할 경우 여당 지지율이 1.4% 상승한다고 제시했으며,⁶⁾ Kramer와 Stiers는 1인

4) V.O. Key,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1964).

5) E.R. Tufte,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D.R. Kiewiet and D. Rivers, "A Restrospective on Retrospective Voting" in H. Eulau and M.S. Lewis-Beck, *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Outcome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New York: Agathon, 1985); F. Schneider and B.S. Frey, "Politico-economic Models of Macroeconomic Policy: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in T. Willett, *Political Business Cycl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P. Nannestad and M. Paldam, "The VP Function: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Vote and Popularity Functions After 25 Years", *Public Choice*, No. 79, pp. 213-245 (1994); C.J. Anderson, *Blaming the Government: Citizens and the Economy in Five European Democracies* (Armonk: Sharpe, 1995); D.R. Kiewiet and M. Udell, "Twenty-five Years after Kramer: An Assessment of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Based upon Improved Estimates of Income and Unemployment", *Economics & Politics*, Vol. 10, No. 3 (2003), pp. 219-248; Stiers Dieter,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Incumbency and Opposition: Retrospective Voting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Vol. 25, No. 6 (2019), pp. 805-816.

6) Wilkin *et al.*, "From Argentina to Zambia: A World-wide Test of Economic

당 실질소득이 실업,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⁷⁾ 지역적으로는 경제적 회고적 투표가 1990년대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 분명하게 작동했다는 주장도 있다.⁸⁾

일반적으로 회고적 투표는 정당 간 정책 차이가 커서 유권자들이 정당 간 입장이나 정책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에서 더 효과적인데, 볼리비아 같은 중남미 국가,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의 유럽 국가, 미국이 그러했다.⁹⁾ Paldam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회고적 투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예외였다고 설명했다.¹⁰⁾ 또 일부 연구자는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신생 정당은 반이민 정책, 민족주의, 유럽 회의주의 경향 등을 강조함으로써 여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악화시켜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당에 불리한 회고적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¹¹⁾ 이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기존 정당

Voting”, *Electional Studies*, Vol. 16, No. 3 (1997), pp. 301-316.

- 7) G. Kramer,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1971), pp. 131-143; Stiers Dieter,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Incumbency and Opposition: Retrospective Voting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Vol. 25, No. 6 (2019), pp. 805-816.
- 8) A. C. Pacek,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1994), pp. 723-744; J. Fidrmuc, “Economics of Voting in Post-communist Countries”, *Electional Studies*, Vol. 19, No. 2-3 (2000), pp. 199-217.
- 9) M. Paldam, “How Robust is the Vote Function? A Study of Seventeen Nations over Four Decades”, in H. Norpoth, M.S. Lewis-Beck and J.D. Lafay, *Economics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Ann Arbor: Univ. Michigan Press, 1991), pp. 9-32; Esponda and Pouzo, “Retrospective Voting and Party Polar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60, No. 1 (2019), pp. 157-186; Antoine Auberger,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Popularity in France (1981-2017)”, *French Politics*, Vol. 17, No. 4 (2019), pp. 451-467; Rodriguez and Martinez, “The Influence of the Economy on Voting in Spain: from the Boom of 2000 to the Crisis of 2011”,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ological Research*, Vol. 18, No. 2 (2019); Lorena Heller, “Medición de las perspectivas de reelección en Bolivia relacionadas a los patrones de calidad de vida”, *Revista Latinoamericana de Desarrollo Económico*, No. 33 (2020), pp. 7-32; Kanat Makhanov, “Assessment of the Electoral Geography of Ukraine: Case of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9”, The 6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Geobalcanica 2020 (2020).

10) Paldam, *Op. Cit.*

과 전혀 다른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위기 시에도 회고적 투표, 혹은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 지지 패턴이 유지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보건 위기가 독일 바바리아 지역과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연구와¹²⁾ 코로나19가 극좌와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감소시켜 일부 정당의 극단적인 성향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가 있다.¹³⁾ 그러나 다수 국가에 대한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한 일반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도 경제적 요인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다른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지지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확진자 등 인적 피해가 큰 국가일수록 여당을 지지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팬데믹 예방을 막지 못한 정부 실책에 대한 질책보다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난 극복을 목적으

-
- 11) Hilde Coffé and Job Van den Berg, “Understanding Shifts in Voting Behaviour Away from and towards Radical Right Populist Parties: The Case of the PVV Between 2007 and 2012”,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Vol. 15, No. 6 (2016), pp. 872-896; Hugo Marcos-Marne *et al.*, “Who Votes for New Parties? Economic Voting, Political Ideology and Populist Attitudes”, *West European Politics*, Vol. 43, No. 1 (2020), pp. 1-21.
- 12) A. Leininger and M. Schaub, “Voting at the Dawn of A Global Pandemic”, Working Paper (2020), <https://osf.io/preprints/socarxiv/a32r7/>(검색일: 2023.10.25.); E. Merkley, A. Bridgeman, P. J. Loewen, T. Owen, D. Ruths, and O. Zhilin,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0), pp. 1-8; Damien Bol, Marco Giani, André Blais and Peter John Loewen,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60 (2021), pp. 497-505.
- 13) Richard A. Benton, Adam Cobb and Timothy Werner, “Firm Partisan Positioning, Polarization, And Risk Communication: Examining Voluntary Disclosures on COVID-19”,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3, No. 4 (2021), pp. 697-723; Matt C. Howard, “Are Face Masks A Partisan Issu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tiating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Party Affil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57, No. 1 (2021), pp. 153-160.

로 하는 ‘국기 결집 효과(Rally-round-the-flag-effect)¹⁴⁾로 설명될 수 있으며, 비근한 예로 걸프 전쟁, 9.11 테러 공격 당시, 미국 내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¹⁵⁾

H1. 코로나19의 인적 피해가 큰 국가일수록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둘째, 각 정부에서 실행한 코로나19 봉쇄 전략이 유권자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EU 회원국들은 팬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 및 초중고교 폐쇄, 공공 모임과 사적 모임 폐쇄, 대중교통과 체육관 이용 금지, 호텔과 레스토랑과 같은 관광 시설 폐쇄, 실내외 활동 금지, 대규모 모임과 비필수 활동 제한, 마스크 의무 착용,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실행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상황이 상이했기 때문에 조치 유형과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봉쇄 조치를 더 장기간 유지한 여당일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제1야당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H2: 코로나19 봉쇄 전략의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제1야당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셋째,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지지율이 팬데믹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실업률도 증가했던 것을

14) John E. Muller,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1 (1970), pp. 18-34.

15) Baker, William D. and Oneal, John R., “Patriotism or Opinion Leadership?: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5 (2001), pp. 661-687.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GDP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침체가 심각한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제1야당과 극우정당 지지율은 상승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H3.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요인은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야당이나 극우정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상기한 3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30개 유럽 국가들의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 지지율을 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2019년 12월 1일), Δ 2020년 첫 번째 확진자 및 사망자 수의 고점을 기록했던 제1과동기(국가별로 2020년 3-4월), Δ 제1과동기 이후 최저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기록했던 휴지기(2020년 5-8월), Δ 두 번째 확진자 및 사망자 고점을 기록한 제2과동기(2020년 10-12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참고로 Worldometer에 따르면 30개 국가 대부분 2020년 내에 제2과동기까지 종료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에스토니아는 제2과동기가 2021년 1월 7일, 슬로베니아는 2021년 1월 6일까지 이어졌다. 30개 유럽 국가들의 정당 지지율 데이터는 Politico 자료를 활용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각국 언론에서 공개하는 정당 지지율도 참고했다.

독립변수로는 제1과동기, 휴지기, 제2과동기 당시 30개 국가 각각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와 같은 팬데믹 관련 인적 피해 요인, 분기별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 각 정부의 23가지 코로나19 대응 조치 실행 누적 기간을 감안했다. 코로나19의 인적 피해 원자료는 Worldometer, 경제적 요인 자료는 Eurostat, 각 정부의 조치 기간 데이터는 EU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 중 코로나19 인적 피해는 국가 간 인구 차이를 고려해 100만 명당 사망자수와 확진자수도 함께 계산했다.

III. 코로나19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영향

1.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의 구분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요인 분석 전에 30개 유럽 국가들의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보통 다수당을 가르키며,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지칭한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연정을 형성한 경우에는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의석 수 비중과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부담의 면에서 여당으로 간주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연정에 참여하더라도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일부 장관만 지명한 경우에는 여당으로 보지 않았다. 제1야당은 정부 구성에서 제외된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이다. 선거에서 최대 의석수를 획득했다라도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1야당으로 보았다.

극우정당은 정부 형성이나 의석수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극우정당은 민족주의, 소비니즘, 포퓰리즘, 권위주의, 제노포비아,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ism) 등의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 나치당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를 분석한 초기 극우정당 연구자들은 그 특징을 특정 인물의 성격과 가치의 방향성,¹⁶⁾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¹⁷⁾ 민족 분쟁¹⁸⁾에서 찾았다. 1990년대 들어 극우정당 지지층이 확대되자 실업률 등 경제적인 요인,¹⁹⁾ 이민자 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정치적 불만²⁰⁾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

16) Theodor W. Adorno, Else Frenkel-Brunswik, Daniel J. Levinson, and R. Nevitt Sanfor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17) John Dollard, Leonard W. Doob, Neal E. Miller, O.H. Mowrer and Robert R. Sears,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CT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9).

18) Sarah Bélanger and Maurice Pinard, "Ethnic Movements and the Competition Model: Some Missing Lin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No. 4 (1991), pp. 446-457.

19) Robert W. Jackman and Karin Volpert, "Conditions Favouring Parties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4 (1996), pp. 501-521.

20) Pia Knigge, "The Ecological Correlates of Right-Wing Extremism in Western Europe",

지를 강화하며,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사회적 안정망은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¹⁾ 본 연구에서는 Mudde, Halikiopoulou, Vasilopoulou, Vlandas 등의 극우정당 연구자들의 분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당들을 각 국가들의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으로 분류하였다.²²⁾

[표 1] 30개 유럽 국가의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 목록(2020)

국가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
오스트리아	Österreichische Volkspartei(ÖVP)	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SPO)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FPÖ)
벨기에	Mouvement Réformateur(MR);	Parti socialiste(PS)	Vlaams Belang(VB)
불가리아	ГЕРБ(GERB)	Коалиция за България(BSP)	Атака(Ataka)
크로아티아	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HDZ)	Socijaldemokratska partija Hrvatske(SDP)	Domovinski pokret(DP)
체코 공화국	ANO 2011(ANO)	Občanskádemokratická strana(ODS)	Svoboda a přímádemokracie(SPD)
덴마크	Socialdemokraterne(SD)	Venstre(V)	Dansk Folkeparti(DF), Nye Borgerlige(NB), Stram Kurs(SK)
에스토니아	Eesti	Eesti	Eesti Konservatiivn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4, No. 6, (1998), pp. 249-279.

21) Duane Swank and Hans-Georg Betz, "Globalization, the Welfare State and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Vol. 1, No. 2 (2003), pp. 215-245.

22) C. Mudde, "Three Decades of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So Wha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2 (2013), pp. 1-19; Daphne Halikiopoulou and Sofia Vasilopoulou, "Support for the Far Right in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2014), pp. 285-288; Daphne Halikiopoulou and Tim Vlandas, "What Is New And What Is Nationalist about Europe's New Nationalism? Explaining The Rise of The Far Right in Europ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5, No. 2 (2019), pp. 409-434.

	Keskerakond(Centre):	Reformierakond(RE)	Rahvaerakond(EKRE)
핀란드	Suomen sosiaalidemokraattinen puolue(SDP)	Perussuomalaiset(PS)	Perussuomalaiset(PS)
프랑스	La République En Marche! (LREM)	Les Républicains(LR)	Rassemblement nationale(RN)
독일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CDU)	Die Grünen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그리스	Νέα Δημοκρατία(ND)	Συνασπισμός Πρωτοπασι κής Αριστεράς-Προοδευτ ική Συμμαχία(Syriza)	Χρυσή Αυγή(XA)
헝가리	Fidesz	Magyar Szocialista Párt(MSZP)	Fidesz, Jobbik, Mi Hazánk Mozgalom(MHM)
아이슬란드	Vinstrihreyfingin – grænt framboð(VG)	Miðflokkurinn(M)	-
아일랜드	-	Fianna Fáil(FF)	Sinn Féin(SF)
이탈리아	Lega Nord(LN+5SM)	Partito Democratico(PD)	Lega Nord(LN)
라트비아	Vienotība(V)	Sociāldemokrātiskā Partij a "Saskaņa"(SDPS)	Nacionālā apvienība(NA)
리투아니아	Lietuvos valstiečių ir žaliųjų sąjunga(LVŽS)	Tėvynės sąjunga – Lietuvos krikščionys demokratai(TS-LKD)	-
룩셈부르크	Demokratesch Partei(DP)	Chrëschtlech-Sozial Vollekspartei(CSV)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ADR)
몰타	Partit Laburista(PL)	Partit Nazzjonalista(PN)	-
네덜란드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VVD)	Partij voor de Vrijheid(PVV)	Partij voor de Vrijheid(PVV)
노르웨이	Høyre(H)	Arbeiderpartiet(AP)	-
폴란드	Prawo i Sprawiedliwość(PIS)	Koalicja Obywatelska(KO)	Konfederacja(Konf)
포르투갈	Partido Socialista(PS)	Partido Social	CHEGA!(CH)

		Democrata(PSD)	
루마니아	Partidul Național Liberal(PNL)	Partidul Social Democrat(PSD)	Partidul România Mare(PRM)
슬로바키아	Obyčajní ľudia a nezávislé osobnosti(OL'ANO)	Sociálna Demokracia(Smer-SD)	Smer-SD, Slovenská národná strana(SNS), Sme-Rodina
슬로베니아	Slovenska Demokratska Stranka(SDS)	Lista Marjana Šarca(LMS)	Slovenská národná strana(SNS)
스페인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PSOE)	Partido Popular(PP)	VOX
스웨덴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S)	Moderata samlingspartiet(M)	Sverigedemokraterna(SD)
영국	Conservative Party	Labour Party	UK independence Party(UKIP)

30개 국가의 여당, 제1야당, 극우정당 지지율은 2020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진행된 제1차 파동, 휴지기, 제2차 파동 시기의 Politico 데이터를 참고했다. Politico는 보통 800명 이상에 대해 "만약 내일 총선이 실시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는 총선과 함께 대선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Politico는 간헐적으로 실행되는 30개 국가의 각 정당 지지율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Kalman 필터라는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²³⁾ Politico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슬란드의 정당별 지지율은 MMR과 같은 여론 조사도 포함했다.

2. 여당 지지율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Politico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의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첫 번째 파동 기간 동안 30개 국가 여당의 평균 지지율은 30.66%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23) How Politico Poll of Polls Tracks Polling Trends across Europe(검색일: 2023.11.20).

인 2019년 12월 1일보다 1.88%p 높았다. 휴지기 동안 여당의 평균 지지율은 30.98%로 0.32%p 더 올라갔으며, 제2차 파동 때에는 29.06%로 1.92%p 하락했다. 즉 여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다가 코로나19가 두 번째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다소 하락한 것이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2019년 12월 38%, 제1차 파동 42%, 휴지기 43%, 제2차 파동40%), 덴마크(26%, 32%, 33%, 32%), 에스토니아(22%, 24%, 24%, 21%), 핀란드(14%, 20%, 22%, 21%), 독일(27%, 34%, 37%, 36%), 헝가리(51%, 52%, 52%, 47%), 아이슬란드(10.6%, 12.3%, 14.3%, 8.3%), 룩셈부르크(15.9%, 18.5%, 20.6%, 19.9%), 몰타(60%, 65%, 66%, 58%), 노르웨이(21%, 24%, 26%, 23%), 폴란드(41%, 43%, 44%, 34%), 포르투갈(36%, 38%, 39%, 38%), 슬로베니아(24%, 30%, 30%, 27%), 슬로바키아(8%, 24%, 24%, 13%)를 들 수 있다. 그 외 크로아티아는 같은 기간 동안 30%, 30%, 33%, 34%로 계속 상승했으며, 네덜란드(23%, 33%, 36%, 37%), 리투아니아(13%, 13%, 16%, 19%)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두 차례 확산되는 동안 30개 유럽 국가들의 여당 지지율이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표 2]는 여당의 지지율의 다른 정당 지지율,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 경제적 요인, 정부의 봉쇄 조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여당 지지율은 제1야당이나 극우정당 지지율 변화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제1차 파동 당시 여당 지지율 상승과 제1야당 지지율 상승 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정도였다. 즉 1차 파동 당시 여당 지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제1야당도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코로나19 피해의 여당 지지율에 대한 영향을 보면 제1차 파동과 휴지기 때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2차 파동 때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미 피해를 경험한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다시 커지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점은 여당 지지율과 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1차 파동 당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2차 파동으로 올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1차 파동, 휴지기, 2차 파동 때 모두 수입액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당에 대

한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총수입액이 1-2차 파동기 사이 726유로 상승했으며 여당 지지율은 9%p 상승했으며, 네덜란드는 각각 3,336유로 상승과 14%p, 덴마크는 1,178유로 상승과 6%p, 크로아티아는 171유로 상승과 4%p, 리투아니아는 1,987유로 상승과 6%p를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는 총수입이 866유로 감소했으며, 여당 지지율도 4%p 줄었다.

여당 지지율과 정부 봉쇄 조치와는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많지 않았다. 1차 파동, 휴지기, 2차 파동 당시 외출 금지 누적 일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휴제기와 2차 파동 당시 식당 폐쇄 누적 일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 상관관계는 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표 2] 여당 지지율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제1차 파동	휴지기	제2차 파동
극우정당 지지율	-0.137	0.049	0.239
제1야당 지지율	0.918*	0.151	0.362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2	-0.000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20	0.007	0.011***
GDP 성장률 변동 폭	-1.216	0.606*	0.454*
실업률 변동 폭	-1.277	-2.342	-1.399**
총수입액 변동 폭	0.002*	0.002***	0.002***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249	-0.089*	-0.003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465*	-0.153*	-0.042*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303	0.145*	0.050*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792*	0.088	0.018
_cons	13.687	23.689*	13.441
R2	0.516	0.619	0.719
N	30	30	30

* p<.1; ** p<.05; *** p<.01

[표 2]는 각 시기의 30개 국가 여당 지지율 자체에 대해 설명할 뿐, 1차 파동, 휴지기, 2차 파동 사이 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표 3]은 각 시기에 따라 당 지지율

의 변동 폭에 대한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1차 파동 때에는 극우정당 지지율이 더 많이 상승한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도 더 크게 증가했다. 1-2차 파동 시기 동안 룩셈부르크의 경우 여당 지지율은 4%p, 극우정당은 6.5%p 상승했으며, 네덜란드는 각각 14%p, 4%p, 포르투갈은 각각 2%p, 3%p, 슬로바키아는 각각 5%p, 2%p 상승했다. 휴지기에는 여당과 제1야당 지지율 변동 폭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와 경제적 요인은 여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 것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당의 지지율과 정부의 봉쇄 조치에 관해서는 1, 2차 파동 시, 외출 금지 누적 일수가 긴 국가일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외출 금지와 같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관관계는 약한 편이었다.

[표 3] 여당 지지율 변동 폭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팬데믹 이전 -1차 파동	1차 파동 -휴지기	휴지기 -제2차 파동
극우정당 지지율 변동 폭	1.295**	-0.035	0.201
제1야당 지지율 변동 폭	0.044	-0.535**	-0.005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1	0.000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14	0.001	-0.001
GDP 성장을 변동 폭	-0.168	0.080	-0.211
실업률 변동 폭	2.030	0.198	-0.490
총수입액 변동 폭	0.000	0.000	-0.000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104	-0.008	0.012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236*	-0.015	0.020*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134	-0.000	0.006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157	0.004	-0.022
_cons	2.475	-0.159	-6.588
R2	0.471	0.430	0.402
N	30	30	30

* p<.1; ** p<.05; *** p<.01

3. 극우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2020년 팬데믹이 확산하는 동안 30개 국가의 평균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 12.1%를 기록했던 평균 극우정당 지지율은 1차 파동 때 11.95%, 휴지기 때 11.74%, 2차 파동 때 11.32%로 낮아졌다. 오스트리아(코로나19 이전 15%, 1차 파동 11%, 휴지기 12%, 2차 파동 13%), 불가리아(2%, 1%, 1%, 1%), 독일(14%, 11%, 10%, 9%), 프랑스(27%, 26%, 26%, 25%), 헝가리(63%, 62%, 61%, 58%), 이탈리아(39%, 36%, 33%, 31%), 슬로바키아(36%, 38%, 35%, 24%) 등이 이러한 사례들이다.

[표 4]는 극우정당 지지율과 다른 정당 지지율, 코로나19 요인, 경제적 요인, 정부의 봉쇄 조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극우정당은 여당의 지지율과는 연관이 없었지만, 휴지기 이후에는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은 국가의 제1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의 인적 피해와 극우정당 지지율은 휴지기 때를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없었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차 파동 당시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국가들은 원래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은 곳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극우정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표 5]에서 다시 설명될 예정이다.

정부의 봉쇄 조치 중에서는 직장 폐쇄 누적 일수가 많아질수록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았다. [표 2]에서 본 것과 같이 1차 파동 때에는 직장 폐쇄 누적 일수가 긴 국가일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는데, [표 2]와 [표 4]를 비교해 보면 1차 파동 당시, 직장 폐쇄 누적 일수가 1일 길어질수록 여당 지지도는 0.792%, 극우정당 지지도는 0.9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건대 직장 폐쇄 누적 일수에 따른 정당 지지도가 극우정당에 더 유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2차 파동 때에는 직장 폐쇄 누적 일수가 긴 국가에서 극우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 4] 극우정당 지지율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제1차 파동	휴지기	제2차 파동
여당 지지율	-0.160	0.063	0.461
제1야당 지지율	-0.148	-0.648*	-0.948**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5	-0.002**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43	0.008	-0.005
GDP 성장을 변동 폭	-1.517	-0.529	-0.172
실업을 변동 폭	-1.052	-4.791	1.920**
총수입액 변동 폭	0.000	-0.000	-0.000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025	0.011	0.011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037	0.127	0.036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112	0.085	-0.024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942**	0.226*	0.161
_cons	16.858	20.736	18.369
R2	0.496	0.554	0.523
N	30	30	30

* p<.1; ** p<.05; *** p<.01

[표 5]는 1차, 휴지기, 2차 파동 사이 극우정당 지지율의 변화 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1차 파동까지는 극우정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한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반면, 1차 파동에서 휴지기 사이에는 야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일수록 극우정당 지지율이 더 크게 높아져 해당 시기 동안 야당과 극우정당 지지율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휴지기부터 2차 파동까지는 극우정당과 여당의 지지율 변동 폭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코로나19의 인적 피해나 경제적 요인은 극우정당 지지율 변동 폭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정부의 봉쇄 조치에서는 1, 2차 파동 당시 외출 금지 누적 일수가 긴 국가일수록 극우정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약했다.

[표 5] 극우정당 지지율 변동 폭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팬데믹 이전 -1차 파동	1차 파동 -휴지기	휴지기 -제2차 파동
여당 지지율 변동 폭	1.295**	-0.035	0.201
제1야당 지지율 변동 폭	0.044	-0.535**	-0.005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1	0.000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14	0.001	-0.001
GDP 성장률 변동 폭	-0.168	0.080	-0.211
실업률 변동 폭	2.030	0.198	-0.490
총수입액 변동 폭	0.000	0.000	-0.000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104	-0.008	0.012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236*	-0.015	0.020*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134	-0.000	0.006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157	0.004	-0.022
_cons	2.475	-0.159	-6.588
R2	0.471	0.430	0.402
N	30	30	30

* p<.1; ** p<.05; *** p<.01

4. 제1야당 지지율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30개 유럽 국가들의 제1야당의 평균 지지율은 2019년 12월 21.86%에서 1차 파동 때 21.64%, 휴지기 때 21.03%로 하락하다가 2차 파동 때에는 21.98%로 상승했다. 불가리아(각각 28%, 19%, 19%, 23%), 덴마크(23%, 22%, 18%, 18%), 핀란드(23%, 20%, 18%, 21%), 그리스(28%, 26%, 25%, 27%), 리투아니아(25%, 18%, 17%, 23%), 몰타(37%, 32%, 32%, 41%), 네덜란드(18%, 16%, 16%, 22%), 스웨덴(18%, 20%, 21%, 22%), 슬로바키아(16%, 18%, 17%, 31%)가 대표적인 예다.

[표 6]은 제1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본 것이다. 제1야당은 1차 파동 당시, 여당 지지율의 변동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휴제기와 2차 파동 때에는 극우정당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코로나19 초기에는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제1야당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으나, 휴지기와 2차 파동부터는 야당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낮았으며, 여당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수 수와 야당 지지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당 대신 야당 지지율이 높아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나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라도 제1야당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상승하는 현상은 볼 수 없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제1야당 지지율과 경제적 요인 간 관계다. 1차 파동 때에는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제1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며, 2차 파동 때에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야당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표 4]에서 본 것과 같이 2차 파동 당시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1, 2차 파동 기간 동안, 여당 지지율이 증가하고 야당과 극우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기 결집 효과가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2차 파동이 시작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당 대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팬데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봉쇄 조치와 야당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는 1차 파동 때 가장 높았다. 외출 금지 누적 일수가 긴 국가일수록 야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 조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유권자들이 이 조치에 반대 입장을 취했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야당을 지지하고,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당에 대해 지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코틀랜드를 들 수 있다. 또 직장과 식당 폐쇄 누적 일수가 긴 국가일수록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았다. 다만 1차 파동 당시까지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한

국가가 많지 않았는데 덴마크(1차 파동 고점까지 26일), 네덜란드(39일)만이 이러한 예에 해당했다.

[표 6] 제1야당 지지율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제1차 파동	휴지기	제2차 파동
여당 지지율	0.172*	0.069	0.176
극우정당 지지율	-0.024	-0.231*	-0.239**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0	-0.000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00	0.001	0.002
GDP 성장률 변동 폭	1.603**	0.065	0.192
실업률 변동 폭	-2.325	-3.276*	1.126**
총수입액 변동 폭	-0.001*	0.000	0.001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081	-0.007	-0.000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255**	0.031	0.009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180*	0.022	-0.011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427**	0.046	-0.062
_cons	22.288***	21.751***	23.224***
R2	0.607	0.389	0.638
N	30	30	30

* p<.1; ** p<.05; *** p<.01

[표 7]은 제1야당 지지율의 변동 폭의 상승·하락과 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야당은 다른 정당의 지지율 변동이나 코로나19의 인적 피해와는 상관관계가 적었다. 다만 휴지기 동안 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일수록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경제적 요인은 1, 2차 파동 시 야당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차 파동 시에는 GDP 성장률이 많이 상승한 곳일수록 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여당과 극우정당의 경우 GDP 성장률 변동 폭과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야당 지지율은 실업률 변동 폭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1차 파동 당시에는 실업률이 많이 하락한 곳일수록 야당 지지율 상승 폭도 커졌으나, 2차 파동 시에는

실업률이 더 많이 상승한 곳일수록 야당 지지율 상승 폭도 커졌다. 앞서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차 파동 때 실업률이 더 많이 높아진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회고 투표가 2차 파동 때부터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파동 시, 총 수입액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야당의 지지율도 상승했는데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이 이와 같은 경우였다.

[표 7] 제1야당 지지율 변동 폭과 보건·경제·사회적 요인 간 상관관계

	팬데믹 이전 -1차 파동	1차 파동 -휴지기	휴지기 -제2차 파동
여당 지지율 변동 폭	0.023	-0.457**	-0.004
극우정당 지지율 변동 폭	-0.666	0.481	0.455
1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0	0.000	-0.000
1백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0.002	-0.000	0.001
GDP 성장률 변동 폭	1.135**	0.002	0.300
실업률 변동 폭	-2.551**	-0.287	1.133***
총수입액 변동 폭	-0.000	0.000	0.001**
마스크 의무 착용 누적 일수	-0.070	-0.012	-0.005
외출 금지 누적 일수	0.072	-0.006	-0.014
식당 폐쇄 누적 일수	0.056	0.003	-0.015
직장 폐쇄 누적 일수	-0.036	-0.002	0.033
_cons	2.885	0.520	6.261
R2	0.609	0.427	0.591
N	30	30	30

* p<.1; ** p<.05; *** p<.01

IV. 결론

코로나19 확산은 예외적인 위기 상황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

의 정당 지지율도 역시 큰 폭으로 변화했다. 30개 유럽 국가들의 2020년 코로나19의 제1파동기, 휴지기, 제2파동기 당시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의 지지율 수준과 변동 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코로나19의 인적 피해는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의 1백만 명 당 사망자 수는 2차 파동 때에만 여당 지지율 상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국기 결집 효과가 2차 때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코로나19의 1백만 명 당 확진자 수는 휴지기 때 극우정당의 지지율 하락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잦아들었으며, 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의 경우 오히려 극우정당의 비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정당 지지율 변동이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봉쇄 조치는 정책 내용에 따라 여당, 극우정당, 제1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유럽 국가들은 총 23가지 봉쇄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 중 외출 금지, 식당 폐쇄, 직장 폐쇄 정책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다.

세부적으로는 외출 금지를 더 오랫동안 실시한 국가일수록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승 폭 자체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출 금지 조치가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유럽 국가와 같이 피해가 크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일수록 제한적이지만 여당에 대한 국기결집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극우정당 지지율 역시, 1, 2차 파동 당시 지지율 상승 폭도 컸는데, 이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여당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경향도 공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 직장 폐쇄 정책도 정당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직장 폐쇄 정책을 오래 실시한 국가일수록 1차 파동 당시 여당과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제1야당 지지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외출 금지 조

치와 유사하게 유권자들이 여당과 극우정당에 대해 양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과 정당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는 1차 파동 때보다 2차 파동 때 더 강했다. 여당 지지율은 주로 2차 파동 당시, GDP 성장률과 총수입액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극우정당은 2차 파동 당시, 실업률이 심각한 국가일수록 지지율이 더 높았다. 여당과 극우정당 지지율 모두 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1차 파동 때보다 2차 파동 때에 더 강했는데,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1차 파동 때에는 경제적 회고 투표가 약화되었다가, 2차 파동 때부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업율의 경우, 2차 파동 당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국가일수록 극우정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여당에 대한 실망표가 이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분석을 통해 30개 유럽 국가들의 정당 지지율은 코로나19 피해 자체 보다는 정부의 봉쇄 조치와 경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봉쇄 조치 중에서는 외출 금지와 직장 폐쇄 정책이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모두 휴지기 보다는 1, 2차 파동기에 더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GDP 성장률, 실업률, 총수입액이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기라도 유권자들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dorno, Theodor W., Else Frenkel-Brunswik, Daniel J. Levinson, and R. Nevitt Sanfor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 Anderson, C. J., *Blaming the Government: Citizens and the Economy in Five European Democracies* (Armonk: Sharpe, 1995).
- Auberger, Antoine,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Popularity in France(1981-2017)”, *French Politics*, Vol. 17, No. 4 (2019), pp. 451-467.
- Baker, William D. and Oneal, John R., “Patriotism or Opinion Leadership?: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5 (2001), pp. 661-687.
- Bélanger, Sarah and Pinard, Maurice, “Ethnic Movements and the Competition Model: Some Missing Lin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No. 4 (1991), pp. 446-457.
- Benton, Richard A., Cobb, Adam and Werner, Timothy, “Firm Partisan Positioning, Polarization, And Risk Communication: Examining Voluntary Closures on COVID-19”,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3, No. 4 (2021), pp. 697-723.
- Bochsler, Danial and Hänni, Miriam, “The Three Stages of the Anti-incumbency Vote: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in Young and Established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8, No. 1 (2018), 30-55.
- Bol, Damien, Giani, Marco, Blais, André and Loewen, Peter John,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60 (2021), pp. 497-505.
- Bottasso, Anna, Cerruti, Gianluca, and Conti, Maurizio, “Institutions Matter: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the Political Trust of Young European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022).

- Chen, Cathy W. S. and Fan, Tsai-Hung, “Public Opinion Concerning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PLOS ONE*, Vol. 17, No. 3 (2022), pp. 1-10.
- Cho, Seok-ju, “Retrospective Voting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pp. 276-291.
- Coffé, Hilde and Van den Berg, Job, “Understanding Shifts in Voting Behaviour Away from and towards Radical Right Populist Parties: The Case of the PVV Between 2007 and 2012”,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Vol. 15, No. 6 (2016), pp. 872-896.
- Dieter, Stiers,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Incumbency and Opposition: Retrospective Voting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Vol. 25, No. 6 (2019), pp. 805-816.
- Dollard, John, Doob, Leonard W., Miller, Neal E., Mowrer, O.H., and Sears, Robert R,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CT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9).
- ECDC, Data on Country Response Measures to COVID-19 (October 21 2021).
- Esponda and Pouzo, “Retrospective Voting and Party Polar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60, No. 1 (2019), pp. 157-186.
-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OVID-19 Situation Update for the EU/EEA, As of 16 July 2021,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retrieved on 17 July 2021).
- European Commission, *COVID-19. Guidelines for Border Management Measures to Protect Health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Goods and Essential Services*, C(2020) 1753 final, (March 16, 2020).
- European Parliament, *Public Opinion Monitoring at a Glance in the Time of COVID-19*(April 20, 2020).
- Fidrmuc, J., “Economics of Voting in Post-communist Countries”, *Electoral Studies*, Vol. 19, No. 2-3 (2000), pp. 199-217.

- Gallagher, Conor. “The Far Right Rises: Still a Fragmented Minority Movement in Ireland, The Far-right Is Using the COVID-19 Crisis Extend Its Influence – Online and on The Street”, *Irish Times*, 19 September 2020.
- Halikiopoulou, Daphne and Vasilopoulou, Sofia, “Support for the Far Right in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2014), pp. 285-288.
- Halikiopoulou, Daphne and Vlandas, Tim, “What Is New And What Is Nationalist about Europe's New Nationalism? Explaining The Rise of The Far Right in Europ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5, No. 2 (2019), pp. 409-434.
- Heller, Lorena, “Medición de las perspectivas de reelección en Bolivia relacionadas a los patrones de calidad de vida”, *Revista Latinoamericana de Desarrollo Económico*, No. 33 (2020), pp. 7-32.
- Howard, Matt C., “Are Face Masks A Partisan Issu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tiating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Party Affil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57, No. 1 (2021), pp. 153-160.
- IMF. 2020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 _____. 2020b.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 Jackman, Robert W., and Volpert, Karin, “Conditions Favouring Parties of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4 (1996), pp. 501-521.
- Kahane, Leo, “Determinants of Country-level Voting Patterns in the 2012 and 2016 Presidential Elections”, *Applied Economics*, Vol. 52, No. 33 (2020), pp. 1-14.
- Key, V.O.,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1964).
- Kiewiet, D.R. and Rivers, D. “A Restrospective on Retrospective Voting” in Eulau, H. and Lewis-Beck, M.S., *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Outcome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New York: Agathon, 1985).

- Kiewiet, D.R. and Udell, M. "Twenty-five Years after Kramer: An Assessment of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Based upon Improved Estimates of Income and Unemployment", *Economics & Politics*, Vol. 10, No. 3 (2003), pp. 219-248.
- Knigge, Pia, "The Ecological Correlates of Right-Wing Extremism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4, No. 6 (1998), pp. 249-279.
- Kramer, G.,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1971), pp. 131-143.
- _____, "The Ecological Fallacy Revisited: Aggregate- Versus Individual-level Findings on Economics and Elections and Sociotropic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1983), pp. 92-111.
- Leininger, A. and Shaub, M., "Voting at the Dawn of A Global Pandemic", Working Paper (2020), <https://osf.io/preprints/socarxiv/a32r7/>(검색일: 2022.5.4.).
- Lewis-Beck, Michael,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8).
- _____, "Comparaison de prévision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n France et aux Etats-Unis", *J. Société Stat*, Vol. 136, No. 1 (1995), pp. 29-45.
- Lewis-Beck, Michael and Stegnaier, Mary,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June 2020), pp. 183-219.
- Lubbers, Marcel, Gijsberts, Mérove and Scheepers, Peer, "Extreme Right-Wing Voting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1, No. 3 (2002), pp. 345-378.
- Maatsch, Aleksandra, "Drivers of Political Parties' Voting Behavior in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 The Ultimate Decline of the Economic Cleavag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9, No. 4 (2016), pp. 648-666.
- Makhanov, Kanat, "Assessment of the Electoral Geography of Ukraine: Case of

-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9”, The 6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Geobalcanica2020 (2020).
- Marcos-Marne, Hugo, Plaza-Colodro, Carolina and Freyburg, Tina, “Who Votes for New Parties? Economic Voting, Political Ideology and Populist Attitudes”, *West European Politics*, Vol. 43, No. 1 (2020), pp. 1-21.
- Merkley, E., Bridgeman, A., Loewen, P.J., Owen, T., Ruths, D. and Zhilin, O.,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0), pp. 1-8.
- Monroe, Kristen R., *Presidential Popularity and the Economy* (New York: Praegar, 1984).
- Mudde, C., “Three Decades of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So Wha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2 (2013), pp. 1-19.
- Muller, John E.,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1 (1970), pp. 18-34.
- Nannestad, P. and Paldam, M., “The VP Function: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Vote and Popularity Functions After 25 Years”, *Public Choice*, No. 79 (1994), pp. 213-245.
- , “Into Pandora’s Box of Economic Evaluations. A Study of the Danish Macro VP-function 1986-1997”, *Electoral Studies*, Vol. 19 (2000).
- Norpoth, H., “The Economy”, in Leduc, L., Niemi, R.G. and Norris, P.,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1996), pp. 299-318.
- OECD “OECD GDP Falls by 1.8%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https://www.oecd.org/sdd/na/gdp-growth-first-quarter-2020-oecd.htm#:~:text=OECD%20GDP%20falls%20by%201.8%25%20in%20the%20first%20quarter%20of%202020>(retrieved on May 26, 2021).
- , “GDP Growth – Second Quarter of 2020, OECD”.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second-quarter-2020-oecd.htm>

- #:~:text=Year%2Don%2Dyear%20GDP%20growth,annual%20fall%20(minus%202021.7%25)(retrieved on May 26, 2021).
- _____,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0, OECD”.
<https://www.oecd.org/sdd/na/GDP-Growth-Q320.pdf>(retrieved on May 26, 2021).
- _____, “GDP Growth – Fourth Quarter of 2020, OECD”.
<https://www.oecd.org/economy/gdp-growth-fourth-quarter-2020-oecd.htm#:~:text=OECD%20GDP%20growth%20slows%20to,falls%20for%20almost%20all%20countries>(retrieved on May 26, 2021).
- _____, “GDP Growth –First Quarter of 2021, OECD”.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first-quarter-2021-oecd.htm#:~:text=Download%20the%20entire%20news%20release,quarter%2C%20according%20to%20provisional%20estimates>(retrieved on May 26, 2021).
- Okolikj, Martin and Hoogue, Marc, “Is There A Partisan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State of the Economy?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European Countries, 2002-2016”,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May 2020).
- Pacek, A. C.,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 J. Polit.*, Vol. 38 (1994), pp. 723-744.
- Pacek, A.C. and RadCliff, B., “Economic Voting and the Welfare State: A Cross-Nation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7, No. 1 (1995), pp. 44-61.
- Paldam, M., “How Robust is the Vote Function? A Study of Seventeen Nations over Four Decades”, in Norpoth, H., Lewis-Beck, M.S. and Lafay, J.D., *Economics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Ann Arbor: Univ. Michigan Press (1991), pp. 9-32.
- Raza, Muhammad Ahsan Ali, Yan, Chen, Abbas, Hafiz Syed Mohsin and Ullah, Atta, “COVID-19 Pandemic Control And Administrative Issues in Pakistan: How Pakistan Mitigated both Pandemic And Administration Issues?”, *Journal of Public Affairs* (2021).

- Rodriguez and Martinez, “The Influence of the Economy on Voting in Spain: from the Boom of 2000 to the Crisis of 2011”,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ological Research*, Vol. 18, No. 2 (2019).
- Schaer, Cathrin. “Germany’s Other Neglected Plague Is Far-right Terrorism: The Coronavirus Crisis is A Perfect Proving Ground for The Extreme Right’s Theories of Apocalypse”, *The Daily Beast*, 18 March 2020.
- Schneider, F. and Frey, B.S, “Politico-economic Models of Macroeconomic Policy: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in Willett, T., *Political Business Cycl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 Stiers, Dieter, Dassonneville, Ruth and Lewis-Beck, Michael, “The Abiding Voter: The Lengthy Horizon of Retrospective Evalua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9, No. 3 (2019), pp. 646-668.
- Swank, Duane and Betz, Hans-Georg, “Globalization, the Welfare State and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Vol. 1, No. 2 (2003), pp. 215-245.
- Tsebelis, G., *Nested Games: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Politic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Tufte, E. R.,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Wilkin *et al.*, “From Argentina to Zambia: A World-wide Test of Economic Voting”, *Electional Studies*, Vol. 16, No. 3 (1997), pp. 301-316.
- World Bank, “COVID-19 to Plunge Global Economy into Worst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Press Release, 9 June 2020.
- _____, GDP Growth (annual %) – Euro are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locations=XC>
(retrieved on September 3, 2023).
- Yearly, Grégoire, “Right-wing Populist Parties’ Bordering Narratives in Times of Crisis: Anti-immigration Discourse in the Genevan Border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22)

〈Abstract〉

Does Pandemic Boost the Support for the Ruling Partie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Support for European Political Parties

Sung Eun Shim*

During the pandemic period, the world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not only in health and economic fields, but also in political ones. European politics also saw substantial changes in supporting rates for the ruling parties, far-right parties, and the main opposition parties. However, in exceptional situations like COVID-19, supporting rates for parties might be influenced more by the crisis itself than by party policies or economic performanc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changes of supporting rates for the ruling parties, far-right parties, and the main opposition parties during the two waves of COVID-19 in 2020.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of supporting rates for the ruling parties, far-right parties, and the main opposition parties of 30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EU member states(excluding Cyprus), Iceland, Norway, the UK, and Scotland, during the first wave, period of pause, and second wave of COVID-19.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supporting rates for other parties, health factors such as COVID-19 casualties and confirmed cases, economic factors like GDP growth rate, inflation, total income, and 23 government-imposed lockdown measures of 30 European countries. The analysis revealed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human casualties of COVID-19 did not directly impact supporting rates of parties. The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ungeun.shim@hotmail.com)

number of deaths per million was on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 increase in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during the second wave, likely due to a rallying effect as the pandemic resurged. Second, among the lockdown measures, bans on outdoor activities, restaurant closures, and workplace shutdowns had an impact on the support rates for the ruling parties, far-right parties, and the main opposition parties. Countries that imposed outdoor activity bans for a longer duration experienced a decrease in support for the ruling parties, while far-right and main opposition parties' supporting rates tended to increase. Third, economic factors continued to influence party support during the pandemic. Countries with higher GDP growth rates, higher total income, and lower unemployment rate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aves maintained higher supporting rates for the ruling parties. Additionally, during the second wave, countries with rapidly rising unemployment rates had higher supporting rates for far-right parties and the main opposition parties. Through this analysis, it became evident that supporting rates for parties in 30 European countries were influenced more by government-imposed lockdown measures and economic factors than by the direct impact of COVID-19 casualties during the pandemic spread.

Key words: European parties, retrospective voting, far-right parties, COVID-19, lockdown measures.

원고접수일: 2023. 10. 1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확정일: 2023. 11. 11.